



2011 숨은예인합마당

· 이상철 선생의

덧배기 · 인생!

2011년 12월 16일(금) 하오 7시 30분
부산대학교 10.16 기념관 (구, 효원대학극장)

주최, 주관 : (사)民族美學研究所

주원 : (사)수영고적민속예술보존협회, 부산대학교 전통예술연구회, BSCF 부산문화재단



2011 숨은예인합마당

· 이상철 선생의 덧배기 · 인생!

세상풍파에 이리 저리 굴실거리면서 멈춘 듯 삼키고 기다리다가 크게 배기고 풀어내는 그런 덧배기 같은 인생

〈숨은 예인 한마당〉은 1993년, 경남 양산 두매에서 눈발 비며 부르는 '지심 소리'의 명인 김갑수 선생을 캐내고 경남 양산에서 나무하며 부르는 '어산령'의 명인 심영무 선생을 내세워 큰 소문 없이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경남 밀양 영남무에서 날이던 날마다 노래와 악기연주와 만담으로 지나는 관람객의 발걸음을 멈추게 한 아들, 거리의 악사들, 소리꾼들, 이 시대의 재인, 광대, 창무패를 찾아 나서기로 하였습니다. 2001년부터는 정식으로 자리를 잡아 '미산 불교 영산재' 보유자 이신 석봉 큰스님을 모시고 원공, 우공, 해공, 지공님과 부산민주공민 소극장에서 제1회 〈숨은 예인 한마당〉을 올렸습니다. 그 이듬해는 1940년대 무성영화 〈검사와 여선생〉이 있어 마지막 번사이신 산출 선생의 모노드라마를 엮어 올리고는, 2008년에 새로운 소리공양을 배풀어 '정주 출정 가'와 '꽃등 들어 남 오시리'를 작곡하고 부르는 범능(속명 정세현)님의 〈노래 이야기마당〉을 펼쳤고, 그 이듬해엔 부산지역 페르젠트의 첫주자 박은의 선생 일행과 부산 소리꾼 홍순연 선생의 〈제즈와 소리의 만남〉을 마련했지요. 2005년엔 우리춤 언어를 정리하신 박금술 명무패 이어 받은 '속울음 곁웃음'의 춤꾼 김광숙 선생의 〈꽃처럼 붉은 춤〉 무대를 올렸고, 이듬해엔 서울과 부산에서, 서예와 바리춤과 불무도를 혼용한 범성님의 피피먼스, 소리의 대중공양 범능님의 소리마당, 몸움작업이 속울음으로 파동치는 일련미의 춤, 짙 짙 새 발상의 신진 김옥희 춤을 함께 올렸습니다. 2007년과 2008년엔 대학교수로서 시인이자 문학사가이던 평론가인 이등순 교수의 어엿한 대중가요로 〈노래로 풀어보는 한국 근현대사〉를 연이어 올렸습니다. 2009년엔 부산 동래의 마지막 권번 출신 유금선 선생을 모시고 〈유금선 선생의 소리인생〉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는 통영오광대 문동충의 명인이시며 플라멩코와 하모니카 등 악기연주에도 능하고 사진가로도 이름을 알리고 있는 김홍충 선생의 〈통영 오광대 김홍충의 예술과 삶〉을 올리기에 이르렀습니다.

올해 2011년에는 일두 번째 정식무대로써 우리나라 대학 발음운동을 태동시킨 부산대학교 '전통예술연구회'의 창립회원으로 일찍부터 영남춤의 명인 들께 덧배기의 깊은 맛을 익혀 지금에 이르고 있는 수영야류 말뚝이 이상열 선생을 모시고 〈이상열 선생의 덧배기 인생〉을 펼쳐 보이고자 합니다.

이상열 선생은 1963년부터 부산대학교 전통예술연구회에서 발음을 좋아하면서 은사이신故 서국영 박사의 지도로 동래학춤과 양산산학학춤의 무보를 채록하고 수영야류 대본을 채록하는 작업에 참여하며 그 누구보다도 길게 영남지역 민속예술에 대한 안목을 갖게 되었습니다. 대학 졸업 후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춤에 대한 열정은 식지 않아서 기회가 닿는대로 춤을 추고 가르치는 일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짧지 않은 시간을 보낸 후 드디어 1997년 수영민속보존회에 들어가 본격적으로 춤에 몰두하게 되었습니다. 멈춘 듯 굴실거리고 춤사위 하나하나에 속으로 삼키고 기다리는 묵직한 기다림이 깃든 덧배기 춤 마당 선생의 인생도 한 곳만 바라보며 뛰어난 것이 아니라 세상풍파에 이리 저리 굴실거리면서 멈춘 듯 삼키고 기다리다가 결국에는 크게 배기고 풀어내는 그런 덧배기 같은 인생이 아니었을까요.

한해를 갈무리 하는 12월 이상열 선생의 인생이 오묘이 새겨진 덧배기 춤 한 가락으로 먹고살기 힘든 세상살이의 깊은 한숨을 신명으로 풀어내어 보는 것은 어찌할지요.

水營野遊劇의 近代舞臺化 試論*

서국영(徐國英)

1. 序 論

필자가 1966년 처음으로 경남지방의 민속가면무극(民俗假面舞劇)인 동래야류, 통영오광대 그리고 고성오광대를 보았을 때 피와피어 가고 있는 이 귀중한 무형문화재인 가면무극을 근대적으로 무대화시키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그리하여 민속학자들이 채록한 야류 및 오광대가면극의 재담들을 검토하여 오랜 중 아직 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수영야류극의 강권(康愼)씨 채록본(1964년 국어국문화 27호)을 읽고, 그 민속자료에 흥미를 느꼈으나 극적 흐름을 알마낼 수 없었기에 직접 수영 연지에 가서 전기(傳記) 강씨 채록본을 참고하면서 조사하기 시작하였다. 그 후 최상수(崔尙壽)씨 채록본〈한국예술총람〉, 1964년 한국예술원발행)이 발표되어 강씨본(康氏本)과 대조하여 본극 약간 내용상의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었으니, 강씨본은 최한복(崔漢福)씨의 구술로 된 것이고 최씨본(崔氏本)은 조두봉(趙斗奉)씨의 구술로 된 것이었다.

수영야류는 이두현(李杜顯)씨의 『중요무형문화재 지정에 관한理由書』에서 밝힌 바와 같이 오광대와 함께 경남일대에 분포된 초계(草溪) 읍지계(吳鼎基)로서 9 영남형 가면무극으로 되어 있다. 초계(합천군)에서 발생한 오광대는 신반(新反, 宜寧郡), 진주, 창원(마산시), 통영(송무시), 고성, 가락(김해군), 수영(부산시), 동래(부산시), 부산전 등지로 전파(傳播)되어 옛날부터 정월 십오일 야간에 연회되었던 것이라고 한다. 이 가면극을 수영, 동래 및 부산전 지방에서는 '들놀음' 또는 '야류'라 하고 김해, 창원, 진주, 고성, 통영 등지에서는 '오광대 탈놀음'이라고 부른다. '들놀음'이란 넓은 들에서 얼굴에 탈을 쓰고 노는 놀이라는 뜻이니 전자(前者)의 삼계(三溪)에서는 넓은 들의 탁자마당 같은 광장에서 놀기 때문에 이렇게 부르게 된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야류 오광대의 내용은 제마초복(除穢辟邪)의 신사무(神事舞)를 비롯해서 승리(勝利)의 풍자, 양반에 대한 조롱과 모욕(誹謗), 그리고 처첩의 삼각관계로 되어 있는 그야말로 소극(笑劇)이다.

한노단(韓諾端)씨는 그의 『戲曲論』의 '희곡의 발생'에서 '소극(笑劇)이란 본래 어느 시대 어느 민족을 막론하고 민중이 모여 가무백희(歌舞百戲)를 하게 되면 자인발생으로 광언(狂言) 기타의 소극적(笑劇的) 요소가 뛰어나와 연

극형식의 한 단계로 소극형태를 이루게 된다.'라고 하여 통산탈춤을 소극이라고 지적하면서 우리나라 가면극을 문예부흥과 함께 16세기 이태리에 등장한 '코메디아 델 알테'와 비교하고 있다.

수영야류도 연극적인 전지에서 볼 때는 소극임에 틀림 없지만 사실은 춤이 주(主)가 되고 재담(才談, 詞謔)과 노래(唱歌)와 동작이 곁들여 연기하는 탈춤의 일종인 가면창무극(假面唱舞劇)이고 보다 다양한 무대형식을 집대성시킨 특수한 무대표현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코메디아 델 알테'는 근 4세기 이전의 희극으로 무용이나 가상대신에 '음성언어로 표현되는 가면극인 것이다.'⁹⁾

그러면 본론의 주제인 수영야류의 연대를 살펴보기로 한다.

1983년에 쓴 손 송석하(宋錫夏)씨의 『五廣大小考』⁹⁾를 보면 '곽수영, 부산, 동래, 김해, 창원, 통영의 오광대 및 야류의 이입제명이 모두 초계가 가 있던 수영사람이 보고 와서 창설(創設)한 것이며 동래춤은 수영의 것을 본받아 약 육십년전에 시작한 것이고, 부산서는 약 사십년전에 동래, 수영의 것을 본받아 시작했다고 한다. 김해의 오광대는 약 사십년전에 동래 것을 참고하여 시작하였고, 창원은 약 사십년전에 초계 대광대(竹廣大)에 의하여 습득한 것이라 하며, 통영은 약 삼십년전에 창원재(昌原齣)에 의하여 만든 것이라 한다. 진주말은 약 오십년전에 선봉군(宣寧郡) 부림면(富林面) 신반리(新反里) 대광대에 의하여 창설되었다고 전해온다. ...'라고 논하고 있다. 이것으로 판단하면 지금부터 약 육십년 전만 해도 경남 각처에서는 오광대가 이미 정착되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송석하씨는 경적이 가장 오래된 수영야류에 대해서는 동래의 것보다는 그 이상의 연수가 되는 95년 이상 약 백년 전으로 보고 있는 것이 틀림없다.

한편 야류 오광대의 유일한 발상지인 초계의 오광대의 성립에 대하여 김용태(金容泰)씨는 '새 論議' 7지외 '五廣大의 發生'에서 '산대도강국의 성립은 대체로 인조 14년 병자호란(1636년) 이후이고 그것이 중부지방을 무대로 해서 형성된 것으로 보아 오광대의 성립도 여기에서 그다지 멀지 않은 것 같다. 인조 14년은 기금(奇金) 330년 전이고 수영야류에 이미 200년 전에 놓았다고 하니 오광대의 성립은 대체로 이 중간기간이 아난가 짐작되는 것이다. 그래서 오광대의 성립을 250년 전후로 보고자 한다.'라고 명하고 있다.

수영야류에 대해서는 송석하씨의 100년 설(說)에 김용태의 200년 설(說)이 맞서 있지만 필자가 현지조사에서 수영 수양관역이었던 최한복씨(70세)의 실담(實談)을 들은 바에 의하면 곽수영 수문장이었던 그의 조부 최상희(崔尙喜)씨, 수영 오위장(五衛將)이었던 그의 부친 최수봉(崔壽鳳)씨 그리고 자기 자신까지 모두 연회자로서 3대로 전수되어 왔다고 하며 그의 조부는 지체 율포에서 관관(關官)을 지냈으나 초계에 마흔 적은 없었다고 하니 수영인으로 부터 연회를 전수받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수영야류는 110년 이상으로 보아도 틀림없을 것 같다. 이러한 고

증(考證)은 연속한 연구가의 일이지만, 여기서 논하는 이유는 수영아류의 무대화를 위하여 그 연희원형을 연구함에 있어서 연희수준은 물론 정략연대도 중요한 자료가 되리라고 믿기 때문이다.

수영수사(水營水使)가 초계로부터 광대를 불러와서 연희를 시작했다고 전해지고 있는 수영아류는 경남지방의 다른 여러 아류 오광대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이면서도 아직 햇빛을 보지 못하고 있지만 3대로 연희를 이어온 최씨 가문의 후손으로 수영유사(水營遺史)한 쓴 최한복씨의 보유가능은 능히 필자의 연구대상이 될 수 있었다. 그가 보여 준 창무(唱舞)를 조사한 결과 필자는 특이한 종류가 있고, 땃배기 춤)는 특이 넓어 민속무로서 자유로운 표현이 가능하여 기교적인 것임을 알아낼 수 있었다.

무대예술로서 발전할 수 있었던 일본의 '가부키(歌舞伎)'의 원형 7에 비하면 우리 것의 원형은 차원 높은 민속적 '스페살리티(特殊性)'가 바닥을 흐르고 있다. 그러므로 근대적으로 무대화하면 편극구성(編劇構成)은 물론이요 무대요소를 주름잡는 장무(唱舞), 그리고 연극적 표현(예외)의 재담과 동작 특히 보행에 이르기까지) 등이 어디까지나 그 원형을 바탕으로 무대미(舞臺美) 연구가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무대에서 연극적 표현은 연출에 속한 작업이었으므로 필자는 본론에서 수영아류의 무대화를 위한 원형검토와 그 양식정착의 방향을 연구하고자 하는 것이다.

2. 原형의 연구

제례에 지켜온 수영아류극의 구성을 대별하여 보면 전편(前篇)과 후편(後篇)이 있는데 전편에는 다른 오광대기면극에서는 볼 수 없는 특유한 (1) 연희장에 입장하는 '길놀이', 장면과 (2) 연정(然灯) 농악의 장면이 있고 후편에는 본극인 가년창무극으로 (1) 양반과장 (2) '영노'과장 (3) 할미, 영감과장 (4) 사자무(獅子舞)과장이 있다.

연희장의 장치도 전편에 있는 '길놀이'와 연정(然灯)을 위한 것으로 특이한 것이다.

정월 대보름날 밤에 시장 한 가운데를 원형연희장으로 만들어 중앙에 장대를 하나 세우고 이것을 중심으로 하여 사방에 동서남북으로 장대 빛을 세운다. 그 꼭대기에 기(旗)를 달고 그 직하(直下)에 큰 용정(龍燈), 봉정(鳳燈), 구선정(龜船燈), 연화정(蓮花燈)을 달고 중앙에 사방으로 거미줄처럼 새겨줄을 쳐서 그 새끼에 많은 정(燈)을 달아 붙일 수 있게 하여 하더라도 중앙에서 잡아당기면 올라가도록 되어 있고 이외의 장치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중략)

(2) 수영발뚜기가 추는 '땃배기 춤'의 특색을 보면, 아무런 서나올 때 좌우수(左右手)를 오르내리며 원발을 들어 바닥에 찍는 동시에 오른 발을 들고, 밑채는 오른손에 치켜들고 오른발을 디디면서 몸을 왼쪽으로 틀어, 우수(右手)를 왼쪽 겨드랑이 밑으로 내리면서 좌수(左手)로 밑채 팔을 잡고 머리 위로 연통대 가락으로 걸머진 채 밑채를 우측으로 돌리고

몸을 우측으로 틀면서 오른발을 들어 뒤로 강하게 빼었다가 다시 앞으로 발뒤꿈치로 찍어 비숫이 두 번 쫓아나가 앞발을 들어 강하게 두 번 추진가락으로 흔들어서 밑채를 양 어깨에 걸머지고 상체를 전후로 강하게 그리고는 좌우로 흔들어서 턱을 내고 머리를 흔들면서 빼간다. 좌우수를 밑채 끝에서 빼고 어깨 위로 치켜들어 밑채 든 우수는 앞을 부리치고, 양손을 교차로 흔들고는 뒤로 틀러서며 다시 양손을 동시에 번쩍 들었다가는 허리를 굽혀 양손으로 무릎을 소리 나게 치고 양손을 머리 위로 번쩍 들어 요정겨려 후회전하며 들어나간다.

(중략)

이와 같이 수영수양반과 밑채의 '땃배기 춤'의 춤사위도 특색이 있거니와 발지(제보 4호 허단 참조) 박사 비교표에 있다시피 다같이 8분의 12박이면서 강약에 따라 표현이 달라진다. 절정에 온했을 때는 장단을 맡아 부쳐서 흥을 돋울 수 있고 느리게 우어서 무속(舞踏)을 넓힐 수도 있다. 그러나 강약의 '프레스'가 완만하여 약화된 통영의 것보다 수영의 것이 훨씬 강하니 아류 오광대의 '땃배기 춤' 중에서 수영 것이 원무인 듯하다. 수영 '땃배기 춤'을 수영에 가까운 통영의 것과 비교해 보면 다 같이 활발하고 진무(進舞)이긴 하지만 통영 양반춤은 연화(軟化)되고 밑채이 춤은 지나치게 강직(強直)한 듯하니 이것은 계승자들의 춤장이 달라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수영수양반적인 최한복씨의 '땃배기 춤'은 무속(舞踏)이 크니 자연 진(進)하면서도 조화된 춤사위를 보유하고 있는 것 같다.

(후략)

* 이 논문은 부산대학교 논문집 제3호(1968년 12월)에 실린 것임.

- 1) 중요무형문화재자료(1964. 10. 20.) p.7 조사자 김천홍 이두현
- 2) 現 陝川郡 德谷面 梁后里로서 옛날에 河市가 있었던 곳으로 영남으로 통하는 유일한 중계지이었으며 仁濟院에 佛堂가 公儀로서 尙寶院 후 나래질 소속의 광대들로부터 舞踏가 移入된 곳이라고 보면 아류 오광대의 발생지이다.
- 3) 한노단 풍 「舞論」 p.120 1965년 장승시 발행
- 4) Commedia dell'arte 이며 佛堂, 로마, 중세기를 거쳐 내려 온 소극의 집대성임
- 5) 한노단 풍 「舞論」 p.121에 있는 (코메디아 델 알레)에 속하는 카노바초(Canovaccio, 轉抄)란 참고
- 6) 송석하 著 「韓國民俗學(1963)」 「五廣大 小考」에서 移용(移用)의 考 (인간문화재) p.121 통영오광대에 轉抄되어 있음.
- 7) 주로 마산 출신들이 내고 있는 원간지, 「五廣大의 發生」은 1965년 9월호 p.12
- 8) 戶根康二 譯 司正勝 著 「歌舞踏」 참고, 昭和40年 日本放送出版協會刊



▲ 1970년 부산대배극단, 제1회 전국대학민족예술경연대회 연습중, 이상열 외 고광서주 선생, 문정원 선생.



▲ 1972년 고 서국영 선생, 고 순세관 선생, 김태광 선생, 이상열, 박흥(사할) 발원지.



▲ 1969년 공연 후 사진, 고 함형서 선생 외 고 희상수 선생.



◀ 1970년 요원대학장 앞, 이태반, 고 서국영, 이상열, 상수남, 김희희, 박문규 외.



▲ 1970년 9월 22일, 서울 시민회관 앞, 제1회 전국대학민족예술경연대회 후, 고 태광선 선생, 고 서국영 선생, 고 김용권 외.

◆ 슬 글 ◆

◆ 이상열

부산대학교 문리대학 철학과 지학사절연 1968년 '전통예술연구회' 창립회원으로 초대회장을 맡았다.

1970년 '전국대학문화예술축전'에서 수영아류로 전체부문 대상을 받았고, 이듬해에는 금상을 수상하였다. 1971년 해 서국영 박사와 함께 수영아류 대본을 제작하였고, 이어 1973년~1976년까지 문화제 조사 때 동래학술(73년), 양산사찰학술(76년)의 무보를 제작하였다.

오랜 사회생활 끝에 1997년 중우형문화제 제43호 수영아류보존회에 입회하여 현재는 맡뭇이, 할미 역 이수자로 활동하고 있으며, 2003년부터 현재까지 동서대학교 연극학과, 부산경상대 방송연예과 등에서 수영아류를 가르치고 있다.



◆ 故 서국영 박사(1925년~2008년)



부산대학교 1회 졸업생으로 부산대학교 인문대학 영어과 교수를 역임하였다.

1968년 부산대학에 '전통예술연구회'를 창립하여 초대 지도교수를 맡았고, 1967~73년 부산민속연구위원, 1968~73년 문화재전문위원 등을 지내면서 수영아류 대본 제작, 동래학술과 양산사찰학술의 무보를 제작하는 등 민속예술 발굴에 큰 업적을 남겼다.

이상열 선생과는 전통예술연구회 창립 당시부터 지도교수와 학생으로 인연을 맺어 이상열 선생을 탈춤꾼의 길로 들어서게 한 스승이라 할 수 있다.

왼쪽의 글은 서국영 박사가 생전에 남긴 수영아류에 관한 유일한 논문으로, 부산대학교 논문집 제9권(1968년)에 실린 내용의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 (사)수영고적민속예술보존협회



강중삼(강구)



김혜경(제대카사)



문명현(복)



조종환(테사지)



최명항(영감)



홍태순(장구)

◆ 부산대학교 전통예술연구회



현만환(정)



정명근(11기)



김병림(12기)



배현열(16기)



박종환(17기)



김현열(26기)

2011 숨은에인한마당

· 이상열 선생의 덧배기 인생 ·

◆ 프로그램 ◆

· 너는 아담 · 이상열의 덧배기

· 역사에 실은 덧배기 인생

· 할미 · 역가과장

· 축하무대 부산대학교 전통예술연구회

- 대극산조 김현열(전통 26기)

- 고서노래대 눈동 · 1 정명근(전통 11기)

- 설자구 박종환(전통 17기)

· 수 · 역 · 알 · 뚝 · 1

· 뒷 · 아 · 당

